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2년도 표어 ◎

성령이여 교통케 하소서 (고후13:13)

◎ 행동지침 ◎

- 1. 내실있는 교회 되어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생활을 실천한다.
- 2. 성숙한 교회 되어 이웃과 세계교회를 섬기며 화평과 연합을 도모한다.
- 3. 책임있는 교회 되어 지역사회와 민족 앞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한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 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 교역자 2분 청빙 · 2개 교구 신설

### 1교구를 1교구 · 13교구 · 14교구로 분할

우리 교회는 교인의 증가와 더불어 6월 30일자로 사임하는 정운돈 목사의 후임을 선 발하는 면접을 실시하고 그 결과 2분의 교역자를 새로 청빙키로 6월12일 임시당회에서 결정하였다.

또한 현재 교회 성도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은혜를 온전히 감당키 위해 현재의 1 교구를 1교구와 13, 14교구로 3분할하여 3분의 교역자가 감당케 되었다. 새로 오시는 2

분의 교역자가 헌신과 사랑으로 본 교회에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토록 그리고 교구를 신설키로 한 교회의 결정에 따라 교구의 모든 업무가 원활하여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새생명을 온전히 양육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교구신설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신임 교역자 인적사항은 아래와 같다.

† 교구신설에 따른 교구조직 개편 †

· 이성득 목사: 13,14교구 담당



한상은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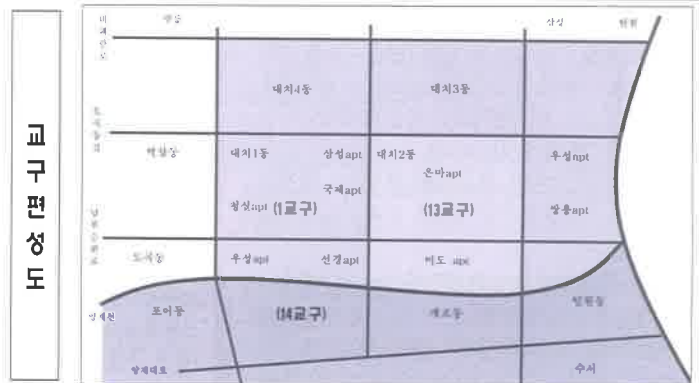
- 한상은 목사(1965년 9월12일 생)
- 연세대 사회학과 졸업
- 동 대학원 사회학과 졸업
- 장로회 신학대학 신대원 졸업(M. Div)
- 2001.4.19 목사안수(서울노회)
- 현 총회 사회부 간사
- 가족: 김하나 사모와 두 아들(세희, 민희)
- 직임: 1교구, 2교구, 교육위원회, 청년부 지도



오정식 목사

- 오정식 목사(1969년 10월28일 생)
- 건국대 철학과 졸업
- 장로회 신학대학 신대원 졸업(M. Div)
- 2001.2.26 목사안수(서울 남노회)
- 영석교회 부목사
- 가족: 김혜숙 사모와 두 딸(유진, 유경)
- 직임: 3교구, 4교구, 순례자, 멀티미디어, 출판부, 장년4, 5부 지도

교 구	교구장	간 사	여간사
1교구	이영수 장로	최영진 집사	이인숙 집사
13교구	김세재 장로	김은태 집사	김인숙 집사 · 박영자 집사
14교구	오정수 장로	정동호 집사	송경점 집사



## 아시아 로잔대회 후원회

### 민박, 자원봉사 신청서 접수 개시 · 7월 7일을 'ALCOE V 후원의 날'로 선포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교회에서 개최되는 제5차 아시아 로잔대회의 성공적 수 행을 지원하기 위해 아시아 로잔대회 운영위원회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금번 아시아 로잔대회는 20여 개 국에서 100명 이상의 교계지도자들이 참가할 것으 로 예상되며 대부분이 서울교회 성도들의 집에 민박하게 된다.

운영위원회는 지난 주 주보에 민박 봉사자 자원봉사 신청서를 배포하고 오늘부터 6 월 30일까지 3주에 걸쳐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한다.

민박의 경우 주로 서울 강남지역에 거주하는 성도들 중 대회 기간 동안 침대가 있는 방을 제공하고 새벽기도 시간과 귀가시간에 동행하면 된다. 필요한 경우 통역 자원봉사 자를 파견하며 일체의 식사는 교회에서 제공하므로 나흘 동안 외국 목회자들을 모시어 교제하는 기회를 갖고 계속 기도로 후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자원봉사는 방문수행, 공항 영접, 식당 및 시설분야 봉사, Information Desk 와 Tea Time 봉사 및 통역 봉사, 그리고 업무 지원 봉사 등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청 년들과 새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된다.

신청서는 현금 시 제출하거나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성도들의 특별 현금으로 충당되는 본 대회 재정을 위해 이미 몇몇 성도들이 현금을 하였고 6월 중 실업인 선교회를 비롯한 각 선교회, 전도회를 중심으로 현금 모금이 있을 예정이며 6월 30일 후원 현금 봉투를 전 교인들에게 배포하고 7월 7일을 '아시아 로잔

대회 후원의 날'로 선포하여 전체 현금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운영위원회는 오늘(6월 16일) 3부 예배 후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운영계획을 확정하며 각 분과 별 모임을 갖는다. (조직 별표 참조)

분과명	위원장	차 장	지도교역자	실행위원
기획 · 진행	김세재	오광환 · 우지원	김은호 목사 이태훈전도사	이태원, 최영진, 김광홍, 최규조, 김윤근, 김 훈, 유복준, 이대진, 이근홍, 이대중, 노창훈, 최치순, 유을상, 오선혜, 이시내, 오명결, 조현숙
의전안내	최종시	조정식 · 양준경	윤영국목사	이영철, 우상태, 김의석, 이동원, 홍창배, 신동진, 이대원, 이현주, 허 숙, 김영란, 제오복, 현기욱, 나연신, 윤숙희, 임승자, 이은자, 이미숙, 박순복, 김진환, 강석우, 김성준, 오민세, 유명중, 홍일성, 박경우
민 박	이영수	탁경준 · 김복승	이성득목사	김영주, 정동호, 임옥순, 송병식, 김은태, 오승민, 유관모, 이광열, 이윤진, 김영식, 전아미, 이인숙, 김인숙, 김정희, 김영옥, 노명자, 이순희
시 설	성준경	오유식 · 조철기	고경선목사	이승우, 윤성남, 김찬홍, 최광철, 장두현, 양인수, 이상호
재 정	오정수	신용식 · 이동만	이규정목사	송인원, 하인선, 안인호
홍 보	노승성	서춘식 · 김시환	고경선목사	김인수, 김종윤, 김민철, 정지은, 이윤진, 신동기, 나소정, 허숙, 정동호
봉 사	윤찬오	최영혜 · 이영희	지혜영전도사	이계홍, 장영일, 이현오, 권사회임역원

이시야 강해

# 베푸신 은총

## (이사야 63장 7 - 14절)



이준운 목사

본문 7 - 9절은 과거에 여호와께서 베푸신 일반적 은총을 회고한 것이고, 10 - 14절은 모세 때에 베푸신 특별한 은총으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간 하나님의 은총을 회고한 것입니다.

### 1.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유대민족의 감사기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7절).

과거를 회고하면 감사하는 기도는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과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합니다. 자비는 히브리어로 '케세드'라고 하며 하나님의 선택된 사랑을 의미합니다.

7절에는 자비, 찬송, 공회, 자비, 은총 등 유사한 말이 반복되어 나오는데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된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폭로된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어려운 현실에 있는 성도가 먼저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는 것은 성도가 가져야 할 합당한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자비를 기억하는 자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8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집에 특별한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야곱이 70명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갔을 때 그들은 모두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번성하여 출애굽을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함까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가정을 선택하시고, 내 교회를 선택하시고, 내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복은 세상의 어떤 복보다 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거짓이 없다는 것은 허위와 허영이 없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 충실하고 우상이나 불신앙에 빠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계 14:5).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속한 자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습니다. 여기서 거짓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요 1:47).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은 사람 앞에서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회개하는 자로서 죄를 가리지 않아야 하고(시 32:2-5),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어서 신실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주님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는 주님의 명령에 신실하지 못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난을 체휼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기 앞의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자기 앞의 사자'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환란을 당할 때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그대로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구원하십니다.

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 ① 심리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평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신실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또 기도하므로 가능합니다.
- ②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므로 믿음의 신실함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약 2:17).
- ③ 하나님께 기도할 때 신실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9절).

하나님의 은혜는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환란을 당할 때 그들 같이 환란을 당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시 68:19).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난을 체휼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기 앞의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자기 앞의 사자'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환란을 당할 때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그대로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낼 것을 약속하셨고(출 23:20-23), 약속대로 구약 시대에도 보내셨습니다(출 14:19, 민 20:16).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 앞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어 문제 해결을 해 주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었을 때에도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여 마시게 한 것도 하나님의 체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수리가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안음과 같이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실패할 때, 위태로울 때 우리를 안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 2. 은혜를 반역한 백성은 징계를 받는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10절).

이스라엘의 반역은 금송아지를 만든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시간이 흐르며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정착기 때에, 남북 분단의 상황에서도 계속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했고 그 결과 북 왕국은 앗시리아에게 멸망당하고 남 왕국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공회(공회)의 구속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반역으로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되었고 마침내는 심판의 몽둥이가 이스라엘 위에 떨어지는 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 3. 선지자의 강력한 탄원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11절).

모세는 성령이 충만한 지도자였습니다. 백성들에게 그렇게도 하나님만 섬기라고 가르쳤는데 하나님 아닌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는 백성들을 바라보고 모세는 심히 근심했습니다.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12절).

이 때 선지자는 탄원의 기도를 합니다. 그는 구약 시대에 홍해를 건너 사건은 신약의 예수님 부활처럼 위대한 사건으로 선지자 이것을 회상함으로 위로와 힘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옛적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팔, 하나님 능하신 팔을 찾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은 모세의 능력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13절).

선지자는 곤경에 처한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탄원의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말이 광야길을 달리듯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왜 지금은 침묵만 하고 계시는지, 포로 된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실 하나님을 선지자는 애대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 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시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14절).

여름 산지에서 풀을 뜯던 양떼가 시원한 골짜기에서 쉬는 것 같이 하나님은 출애굽 시킨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어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곤경에 처한 주의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선지자는 탄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엔 타운젠드(Anne Townsend)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은 중보기도라고 했고, 조나단 에드워드(Jonathan Edwards)는 교회의 영적자각이 있기 전에는 항상 이보다 앞서 비범한, 연합된 그리고 지속적인 기도모임이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우리교회에 기도합주단(COP: Concerts of Prayer)이 발족된 지 한 달을 맞아 벌써 21개의 COP가 결성되어 교회에 기도의 합주소리가 진동하고 있다. 말이 쉽지 매주 만나서 15분간 기도하기를 7년 동안 한다는 것이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니어서 모임이 형식적으로 흐를 수도 있겠고 용두사미로 끝날 수도 있으리라는 우려 속에 수소문하여 모임의 현장들을 찾아봤다. 주로 주일에 집중적으로 모이다 보니 마땅한 장소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고 함께 모이는 시간을 정하기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고 한다. 평일에 모이는 팀도 있었고 주일 오후 기도합주단 참여를 계기로 많은 새가족들이 찬양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게 됐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었다.

제일 먼저 주일아침 8시 40분 403호에서 임장로님이 이끄는 한가족 9팀을 찾았다. 사위하고 정장을 한 단정한 모습이 식당에서 별 때와는 전혀 다른 흥집사님. 대학교수인 김집사님, 찬양대로 봉사하는 성집사님, 초등부 교사이신 이권사님, 지휘자 서집사님 모두가 정시에 모여 장로님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앞으로 7년간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기도하자고 말씀하신 후 각 가정의 기도제목에 확인하고 각 가정별로 통성기도를 한 뒤 장로님의 마무리기

# 기도 향기가 교회를 진동한다 (1) -COP 발족세 달을 맞으며-

도가 이어졌다. 각 가정의 기도제목대로 특히 자녀들의 믿음과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를 마친 후 1부 예배를 위해 예배실로 향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주님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라는 중보기도가 절로 나왔다.

한가족 2팀은 8층에서 주일 오후 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8명 중 3명이 새가족부 남자교사로 짜여져 있는데 가끔 만나고 있으며 정기적 모임을 위해 앞으로 열심을 내기를 다짐한다. 기도 외에는 다른 류가 없다는 말씀 기억하며 분발을 바란다.

새가족부 모임이 끝나자마자 1시30분 602호에서 모이는 한가족 1팀 7명의 얼굴은 기쁨으로 넘쳐있었다. 우선 사진부터 찍고 이권사님의 말을 들어보니 7명이 모이는데 짝민음인 엄마와 두자매의 교회출석을 위해 기도해왔는데 드디어 오늘 김기수씨와 김준호씨가 교회를 나와 등록을 하였다는 것이다. cop를 통해 시누가 신앙을 회복했다고 장집사는 눈물을 흘렸다. 주님, 기도의 합주소리를 들으신 것에 감사하나이다.

많은 감동을 안고 오후 2시 403호에서 모이는 한가족 17팀으로 내려갔다. 아직 시간이 멀었는데도 모여서 대화

를 나누고 있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기도합주단에서 나는 기도제목과 듣고 기도하고 있다는 김팀장의 말을 들었고 간사로 수고하는 새가족인 손집사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모집사님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는데 보람이 크다고 한다. 이 팀이 기도모임을 이끌 권사님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여 오셨다는 전권사님이 마침 오신다. 권사님이 오신 후에 기도모임이 활력이 생겼고 모두들 이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한다. 애기가 무르익을 무렵 영어성경반이 끝나 모두들 기도하러 가시는 것을 보며 한가족 된 모든 가정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과 연합한 팀에 필요한 기도동지를 보내주셔서 한 팀도 낙오하는 일이 없기를 기도했다.

점심식사 후 역시 오후 2시에 모이는 서집사가 팀장인 한가족 4팀을 8층에서 만났다. 간사인 이집사님의 말이 7명이 매주 만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기도모임을 통해 매주 한번 씩 수료한 새가족들을 만날 수 있어 반갑고 좋다고 했다.

한가족6팀은 민장로님이 팀장으로 매주 오후 2시 만나홀에서 착실히 잘 모이고 있다. 이권사님은 서로를 위해 하루에 한번 씩 기도하는 것이 좋고 옛날에는 얼굴보고 그냥 인사만 했는데 요즘은 cop기도 기도제목에 핸드백에 넣어 다니면서 기도하다보니 만나면 기도제목에 대한 얘기도 나누며 한번 더 손을 붙잡게 되고 더 친근감이 가서 주 안에서 한가족 됨을 느끼며 더 깊숙히 기도하게 된다고 하신다.

이운진(편집부)

## 아시아 로잔대회



### 나는 무엇을 도울 수 있나?



김재세 장로(ALCOEV 후원회 운영위원장)

8월 26일부터 나흘 간 아시아 지역 20개국에서 교계 지도자 100여명과 강사 20여명이 제 5차 아시아 로잔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우리교회를 방문하게 된다.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150여개국 약 2,700명의 복음주의 교회지도자들이 참가한 '세계복음화 국제대회'를 계기로 보수적이며 성서적인 세계 복음화 운동을 대표하는 상설기구로 '로잔 세계복음화 위원회'가 조직되어 로잔대회의 신학적 입장과 정신에 따라 세계 선교의 사명 수행을 촉진하는 일을 해 오고 있다.

제5차 아시아 로잔대회(ALCOE V)의 성공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교회는 KIMCHI(한국교회 갱신연구원) 내에 '제5차 아시아로잔대회 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운영위원 및 실행위원을 임명하여 본격적인 지원활동에 들어갔다.

우리 교회는 매년 김치신학세미나를 통해 외국의 영향력 있는 교계지도자들을 초청하여 영적 재충전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의 자국 복음화에 일익을 담당해 왔고 김치신학세미나는 1996년 로잔의 공인기구로서 인정을 받았다.

뜻깊은 국제대회인 로잔대회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첫째, 참가하는 교계지도자들과 강사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다.

이는 전 교인이 합심하여 적극적으로 후원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이다.

둘째, 대회경비를 대부분 성도들의 특별헌금으로 충

당하는 재정적인 후원을 하는 일이다. 후원회는 오는 7월 7일을 '아시아 로잔대회 후원의 날'로 선포하고 전 교인들이 동참하는 특별헌금을 실시하게 된다.

셋째, 민박 봉사에 참여하는 일이다. 100여명의 참가자들이 강남지역 성도들의 덕에서 민박하게 되므로 나흘 간 침대를 갖춘 방을 제공하고 함께 교제하며 대회 후에도 계속해서 기도하며 후원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귀한 경험이 될 것이다. 넷째, 자원봉사로 참여하는 일이다.

교회 설립 후 처음 있는 대규모 국제대회에 많은 일손이 필요하다. 전체 기간 동안 다 참석할 수 없어도 시간이 되는대로 사전에 지원서를 제출하여 봉사 가능한 분야를 지원하면 된다.

특히, 청년들과 새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환영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아시아 복음화를 위해 애쓰시는 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하고 친절하게 맞아 주어야 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와 물질의 후원과 아름다운 봉사를 통해 아시아 로잔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루어져서 복음의 열매가 아시아 각국에 풍성하게 맺어지길 기원한다.

### † 단 신 †

· 지난6월8일 육군사관학교 창립50주년 기념예배서 우리교회는 육사교회 발전과 생도복음화에 기여한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 지난5월22일 미국 웨스트민스터신학교는 The Andreas Academic Center를 준공하면서 교수연구실 한방을 서육교회 이름으로 봉헌했다.

† 서울강남노회주최 유치부 성경암송대회의 금상수상†  
서울강남노회주최 유치부 성경암송대회(5/18 수서교회)에서 본 교회 유치부 이광, 김정훈 학생이 금상수상, 오늘 찬양예배 시 시상한다.

### †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생활실천수칙 †

(총회사회부 공문 발책)

#### -교회에서 지켜야 할 일-

1. 식사, 인원, 재고 물량, 보관능력에 맞춰 계획성 있게 식물을 구입합니다.
2. 적정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해 구입날짜 순서대로 보관하고 사용 합니다.
3. 조리시의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합니다.
4.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덜어 먹도록 준비합니다.
5. 음식쓰레기 배출량을 조사해 다음 식단에 참고합니다.
6.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와 이물질을 없애 위생적으로 관리합니다.
7. 남은 음식은 이웃과 나눕니다.

#### -가정에서 지켜야 할 일-

1. 식단 계획을 세워 필요한식품만 구입합니다.
2. 냉장고를 늘 점검하고 음식을 넣을 때는 날짜 순서대로, 속이 보이는 그릇을 사용합니다.
3. 생식품은 바로 손질해서 조리하고 보관합니다.
4. 가족의 건강과 식사량에 맞춰 조리합니다.
5.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을 만큼 덜어서 남기지 않고 먹습니다.
6. 지나치게 짜거나 맵게 먹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7. 음식물 쓰레기는 따로 버립니다.

# 홍해, 이렇게 건너고 있습니다

박훈자 집사(1교구)



오늘도 남편 한글수 집사와 큰아들 상욱이, 작은아들 상혁이와 함께 4식구가 홍해작전에 참석하기 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나섭니다. 올해는 어떤 모습으로 기도 응답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작년 1월 교회 입당을 즈음하여 처음으로 서울교회를 출석하였고, 5월에 등록, 6월에 홍해작전을 참석하였습니다.

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기도응답을 생각하면 지금도 감사한 마음이 솟구칩니다. 원래 믿음이 좋았던 남편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게 되면서, 그 때문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여러 가지로하던 교회 봉사를 접고 뒤로 물러나더니 슬그머니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급할 길이 없었지만 내가 할 일은 기도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집 가까운 곳에 서울교회가 생기고 함께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해작전 후로는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주일성수하는 남편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서울교회를 다니며 저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니다. 큰아들 상욱이는 외국인 회사를 다니다가 전문가의 길을 걸었다며 새롭게 공부를 시작했고, 상혁이는 고등부 교사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남편은 건강을 많이 회복하였습니다. 여기에 저의 바램이 있다면 상욱이에게 하나님께서 시


온의 대로와 같이 그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과 남편이 주일에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홍해작전은 하이텔베로그 소요리문답을 공부하는 기쁨으로 새벽마다 교회를 향하는 발길이 더 가뻑습니다. 하이텔베로그 소요리문답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지만 유럽에서 만들어진 때문인지 약간은 딱딱하기도 하고 철학적이기도 한 내용을 우리 이종운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알기 쉽고 확실하게 가르치시는지요. 웬지 저의 신앙수준도 한층 높아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훌륭한 목자를 만난 양의 행복이 바로 이런 것 아닌가요.

이번 홍해작전이 끝나면 은밀한 저의 기도를 미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함께 찬양대에 서는 그 날을 꿈꾸며 저는 오늘도 흥해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아 봅니다.

**사랑의 회**  
**주님의 사랑 펼치려고**

이민화 권사(5교구)



우리 성도 몇사람이 1983년부터 이웃사랑을 실천해 보자 사랑의 회를 조직하고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랑의회는 동방사회복지회를 비롯한 충북 청주 맹인학교와 100교회 운동까지 후원 활동의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동방사회복지회는 지난 1972년 설립된 종합 사회복지기관으로 국내외 입양, 아동보호소 운영, 미혼모보호시설 운영, 장애인 대상 재활원 및 근로복지관 운영, 교육, 선교사업, 의료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 청주 맹인학교는 맹인들의 재교육을 통한 재활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월이 많이 가 나이가 많아지고 보니 벅찬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서울교회 성도여러분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 사랑의회가 더욱 많은 사랑을 실천에 귀한 열매를 맺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정과 상담**

이현숙 집사  
(11교구, 가정상담부)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류 최초의 공동체이며 교회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큰 축복이며 선물로서 우리는 이곳에서 사랑과 위로와 힘을 공급받으며 살아간다. 그러나 가정은 가장 아름답고, 따뜻하고, 행복한 곳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큰 상처를 주고받는 곳이기도 하다. 가정에서의 아픔들은 다음 세대로, 또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며 교회와 사회에 상처를 주고 그 상처는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곤 한다. 가정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우리 대부분은 사랑과 용서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사랑과 용서는 쉬운 작업이 아니다. 아마도 가장 사랑하기 어렵고 가장 용서하기 어려운 것이 가족일지도 모르겠다. 많이 기도하고 노력해도 잘 되지 않는다. 내 마음이 정말 문제다.

우리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는다. 마음도 몸이 못지 않게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일까? 많은 기독교 심리학자, 상담가들은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마음을 연구해왔고 이에 대한 교회의 관심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나 자신도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가정 안에서 많은 갈등을 겪었다. 뒤늦게 기독교 상담을 공부하면서 진작에 배웠더라면 어려움을 줄이고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에 아쉬움이 크다. 특히 아이들에게 너무나 잘못된 것이 많아 때때로 마음이 아파 오곤 한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여 올해 우리 교회 가정상담부 봉사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5개월이 지나도록 찾는 분이 별로 없어서 안타깝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만 상담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교회 안에서 말거리가 될까 염려하여 못 오시는 것은 아닌지 이런 저런 생각을 해본다. 상담에 있어서 비밀보장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또한 상담은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행복을 증진시키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기도 하다. 자신을 좀더 잘 이해하는데 유익한 인성검사와 e-mail 상담도 이용하실 수 있다. 직접 가정과 연관된 주제가 아니어도 괜찮고 청소년들도 환영한다. 우리 가정상담부에는 각각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섯명의 상담원들이 있다. 부족한 부분들이 많지만 여러분이 어려움과 함께 하며 더 배워가고자 한다.

가정의 변화는 개인으로부터 시작한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해지기 시작하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가정이 변할 것이다.

## 동정

- 이종운 목사는 한국 장로교 신학회 창립을 맡기고 20일 우리교회에서 첫모임을 갖는다.
- 개업: 5교구 김봉수집사, 김남숙집사, 새은혜피아노 (031-452-8700)
- 김중운 집사(4교구)는 6월18일 증린단 선교회에서 강연을 한다.

☎ 금주의 식사제공: 이남록 권사 가정(범사에 감사)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국동방송(HLK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 서울교회 상담실 †**

1. 상담시간: 오전 11:30-1:00 (403호)  
2. 상담방법: 인터넷상담, 즉시 면담, 긴사외의 전화예약 (019-376-3892)

법률	이승준 - lawboram@hanmail.net 법률상식 및 소송절차
세무	왕경래 - wk139@hanmir.com 세무상식 및 세무처리절차
병무	이병석 - bslee@5425.com 병무에 관한 전반
의료	안인오 - Adavid@hosanna.net 이비인후과, 신경외과, 피부과정형외과, 내과, 치과, 한의과
교육	이은옥 - Benjade@hanmail.net 교육 및 학교생활문제전반
가정	김은태 - eunkim111@hanmail.net 가정문제 전반
결혼	이영희 - yhlees52@empal.com 초혼 및 재혼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월드컵 성공과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2. 홍해작전에 참여하여 승전 할 수 있도록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4. 국가의 안정과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 일 예 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 요 기도 회	오후 9시 30분
새 벽 기도 회	매일 새벽 5시 30분

